



핀란드 교육 ‘실패’ 아닌 ‘개혁과정’

2013.12.12 최정은_새사연 연구원 | jechoi@saesayon.org

OECD가 201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핀란드의 수학, 과학, 읽기 영역의 순위가 크게 하락한 결과에, "핀란드 교육의 황금시절은 끝났다"거나, "세계 모바일의 선두주자 노키아의 추락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과연 핀란드의 평등교육을 향한 개혁은 수정되어야 할까?

최근 발표된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가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핀란드 교육에 또다시 주목하고 있다. 이제까지 핀란드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수학, 읽기, 과학 등 모든 영역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면서도, 학생들의 학력격차를 좁히는 평등교육으로 ‘수월성과 형평성’을 모두 갖춘 성공사례로 전 세계의 귀감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2012년 PISA 결과 핀란드의 학업성취 수준은 전 영역에서 하락했고, 특히 수학에서 12위권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내외부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핀란드 공영매체 핀베이(Finbay)는 “핀란드 교육의 황금시절은 끝났다(Golden Days Where Finland’s Education A Success Are Over)”고 혹평했다. 또 다른 매체인 YLE은 “핀란드의 교육: 새로운 노키아?(Finland’s school system: The new Nokia?)”를 통해 핀란드 교육이 추락하는 국가 챔피언 노키아의 운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고 꼬집었다. 수년간 세계를 호령하던 모바일 선두주자 노키아가 새로운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매각된 것에 빗대어, 핀란드 교육도 낮은 학업성취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원인에 대해 핀란드 교육개혁가 파시 살베리는 국내의 소득격차와 일부 지자체의 재정적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학생들 간 학업성취 수준이 벌어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과연 핀란드의 평등교육을 향한 개혁은 수정되어야 할까? 후쿠다 세이지의 『핀란드 교실혁명』(비아북, 2008년)을 통해 본다면, 핀란드 교육의 가치는 “교육이라는 이름의 보트를 탄 아이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물에 빠지게 내버려두지 않는다”에 모두 표현되어있다. 다양한 가정배경과 수준의 아이들에게 개별학습을 제공해 수월성을 높이고, 복지 차원에서 평생 교육의 기회도 열어두고 있다. 교육과정은 아이들이 성적에 목매이게 하기 보다는 스스로 배움의 가치를 알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돕는데 주안을 둔다. 이를 위한 교사의 전문성은 높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우리와 판이할 정도로 높다(새사연 보고서, “경쟁” 없이 세계 최고 경쟁력 키운 교육강국 핀란드”, 2008.6).

물론 이번 결과에 핀란드 교육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 공교육 혁명의 모델로 자리해온 핀란드가 ‘해외 교육 관광지’로 옮겨가면서 오히려 핀란드 자체의 교육과정 개발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핀란드가 취약했던 수학 영역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혁과정에서의 문제도 다음과 같이 꼽고 있다. 핀란드 교육이 수학의 기초과정을 소화하는 수준에서 수행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어려운 수학을 기피하게 되고 아예 빠지게 되면서, 고등교육과정에서 다시 습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한편에서는 PISA 평가 방식의 적용 문제로, 핀란드 교육이 이런 성과마저 폄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높다. 핀란드 교육 자체가 시험에 비중을 둔 교육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수학에서 고득점을 거둔 아시아국가들은 핀란드와 비교해서도 교과 투자시간이 훨씬 많은데다, PISA와 같은 시험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채우고 있다. 이처럼 이번 결과가 핀란드 교육의 문제로만 접근해 실망하기 보다는 아시아 국가들이 시험에 보다 잘 적응한 결과로도 해석하고 있다. 수학 영역만 살펴봐도, 1위 상하이, 2위 싱가포르, 3위 홍콩, 4위 대만, 5위 한국, 6위 마카오, 7위 일본 순으로 상위권을 독차지하고 있다. 핀란드의 PISA 하락을 둘러싸고 의견들이 분분하다.

그렇다고 이번 PISA에서 한국이 거둔 성과만을 내세우기에 우리 교육의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다. 2012년 PISA 결과 한국 순위는 수학 1위, 읽기 1~2위, 과학 2~4위이며, OECD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체 65개국 중에서도 우리는 수학 3~5위, 읽기 3~5위, 과학 5~8위로 상위권에 들었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은 학교생활이 불행하다고 말한다. 우리의 학교생활 행복감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다. 우리는 장시간 공부에 매달리면서 그 안에서 스스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다. PISA 결과 보고서 내용처럼, 우리 교육은 여느 나라와 다르게 대학을 졸업해야 하고, 30세에는 전문직에 종사해야 한다는 부모의 큰 기대에 짓눌려 있는지도 모른다.



이번 PISA의 결과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핀란드가 사회경제적으로 직면한 환경에서 ‘수월성과 형평성’을 위한 교육개혁을 어떻게 진전시켜갈지 지혜를 모으는 계기로 삼고, 우리는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어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과정을 만들 것인지 고민하는 시작점으로 삼아야 옳을 것이다.

Finland Used To Have The Best Education System In The World -What Happened?

세계 최고의 교육국가 핀란드에 무슨 일이?

비즈니스 인사이더
아담 테일러(Adam Taylor)
2013년 12월 3일

핀란드는 40년 전 교육개혁 이래로 세계 최고의 교육체제로 각광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변했다. OECD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통해 전 세계 학생들의 읽기, 과학, 수학 영역의 순위를 발표했다. 핀란드는 12위로, 에스토니아 뒤를 이었다.

핀란드 순위는 크게 떨어졌다. 핀란드는 2000년, 2003년, 2006년에 이어 계속 최상위권에 올랐다. 그러나 올해 핀란드 학생들은 수학에서 2.8%까지 떨어지고, 읽기와 과학에서 각각 1.7%와 3% 하락했다.

핀란드 공영매체인 핀베이(Finnbay)는 PISA 결과가 발표되자 “황금시절은 끝났다”고 핀란드 교육을 평가했다.

크리스타 키우루(Krista Kiuru) 교육부 장관은 “학습 결과의 일반적인 하락은 핀란드 교육 발전을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자와 교육가, 정치인뿐 아니라 학생 대표와 부모도 함께하는 대응 포럼을 열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개혁 면에서 핀란드를 지켜봐온 사람들은 실망할 수 있다. 핀란드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최상위권 국가들 중에서도 독특하다. 늦은 수업 시작 시간, 시험 비중이 낮은 교육, 긴 휴식 시간, 많은 선생님들, 사립에 대한 엄격한 규칙과 제한 등이다.



도대체 핀란드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핀란드의 교훈: 세계가 핀란드 교육의 변화에 무엇을 배울 수 있나”의 작가 파시 살베리(Pasi Sahlberg)는 워싱턴포스트에 몇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 구절은 이렇다.

세계 교육의 리더와 역할 모델이라는 불확실한 지위가 계속 발전해가려는 핀란드의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해외 관광객 대상의 설명회에 주안을 두면서, 핀란드 자체의 교육과정 개발과는 멀어졌다고도 비판한다. 다른 이들은 PISA의 명성이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교육과정을 바꾸도록 한다고 지적한다. PISA의 질문 형태가 학생들로 하여금 PISA와 같은 시험에 대비해 배우도록 한다고 지적한다.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교육 실무 그룹의 의장인 존 뱅스(John Bangs)는 또 다른 설명을 한다. “핀란드와 스웨덴(다른 북유럽국가들 또한 순위 하락)은 경제적 하락으로 사회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풀이한다.

핀란드의 높은 PISA 순위는 핀란드 교육자들 사이에서 몇 가지 논란을 야기했다. 문제는 특히 수학에서, 여러 교육자들은 PISA가 학생들을 순위매기는 방식(PISA는 교과 과정에 기반한 지식보다는 일상의 지식에 주안을 두고 있다)에 동의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2005년에 200인 이상의 핀란드 학자들은 PISA의 성공적인 결과에 안주하는 것에 경고를 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최근 두 명의 핀란드 교육 전문가-수학 잡지 Solmu에서의 수석의 편집장인 Markku Halmetoja와 IMO(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핀란드 팀 리더인 Matti Lehtinen-에게 핀란드 수학교육의 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1985년에 이뤄진 정치적 결정에 따라 1-9학년(7세~15세)의 교육의무 과정에는 하나의 수학 프로그램만 있다. 초급 단계에서 모두가 기본 산술 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본다면 대다수 학생들이 대수학과 기하학 등을 너무 어려워 교육 과정에서 사라지게 했다. 그 결과 고등학교 수학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고, 대학 연구에서 수학 관련한 어떤 주제를 다루기 위한 수준에 도달하려면 너무 갈 길이 먼 현실에 직면한다. 수학에서 학생들의 낮은 학업성취도 수준 지표나 국제수학올림피아드와 같은 고등학교 수준의 국제 대회에서 핀란드가 계속 낮은 결과를 얻는 것은 중요하게 봐야 한다.

이러한 측면은 보통 핀란드 교육 개혁의 지지자들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 스웨덴 대학의 가브리엘 헬러 살그렌(Gabriel Heller Sahlgren)은 교육과정 기반의 지식에 더 주안을 두는 또 다른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 연구(TIMSS)에 대해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흥미롭게도 올해 핀란드의 가장 큰 하락은 수학에서였고, 핀란드는 수학에서 12위를 했다.

핀란드 교육가들은 그 순위에 놀라지 않았다. 올해 교사가 된 카이 아리 룬델(Kai-Ari Lundell)은 “우리는 수학을 일주일에 4번 가르친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수업시간과 비교해 많지 않다” 고 말한다.

물론 모든 것들이 상대적이고, 핀란드는 여전히 읽기와 과학에서 상위권이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올랐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은 수학에서 7위권, 읽기에서 5위권, 과학에서 4위권 안을 독차지했다. 결국 이 성공은 더 열심히 노력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businessinsider.com/why-finland-fell-in-the-pisa-rankings-2013-12>

http://yle.fi/uutiset/finlands_school_system_the_new_nokia/6965192

<http://www.oecd.org/pisa/keyfindings/pisa-2012-results-overview.pdf>



2013년 새사연의 '세계의 시선' 목록

2013년 12월 11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세계의 시선	1/11	세계 경제 침체에 가려져 놓쳐서는 안 될 문제들	이수연
세계의 시선	1/28	금융위기와 가계부채, 그리고 신용 협동조합	김병권
세계의 시선	1/25	경제위기와 보건의료정책, 그리고 건강	이은경
세계의 시선	1/27	루비니 교수가 말하는 2013년 경제의 5대 위험	김병권
세계의 시선	2/1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하는 공정한 성장을 위한 길	김수현
세계의 시선	2/12	소득 불평등에 대한 미국 보수의 반격?	여경훈
세계의 시선	2/14	세계적 불황에 누가 가장 취약한가?	최정은
세계의 시선	2/19	주민들의 건물 공동소유로 높은 임대료 극복하기	이수연
세계의 시선	3/9	브라질 전 대통령 룰라가 평가하는 차베스	김병권
세계의 시선	3/12	단기 자본 수익에서 벗어나는 것이 창조경제	이수연
세계의 시선	3/21	싱가포르가 저출산에 대처하는 방법	최정은
세계의 시선	3/26	EU, 심각한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나서	김수현
세계의 시선	3/29	뱅크런과 구제금융 ABC	여경훈
세계의 시선	4/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백년만의 영국 연금개혁	이은경
세계의 시선	4/9	영국 아빠들이 '출산휴가' 를 거부하는 이유	최정은
세계의 시선	4/16	아베가 쏘아 올린 세 가지 화살	여경훈
세계의 시선	4/23	고용 회복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 정책 필요	김수현
세계의 시선	4/30	자신의 국민과 싸운 '철의 여인' 대처	김병권
세계의 시선	5/7	재정 긴축을 놓고 충돌하는 세계	이수연
세계의 시선	5/14	'복지 여왕' 의 신화에서 벗어나라	이은경
세계의 시선	5/21	일본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경험의 시사점	최정은
세계의 시선	5/24	규제가 없다면 선한 자본도 없다. 애플도, 구글도.	김병권
세계의 시선	5/28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말	여경훈
세계의 시선	6/4	OECD, 한국에 실직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권고	김수현
세계의 시선	6/10	동아시아 산업정책 경험과 아프리카의 발전	김병권
세계의 시선	6/19	퀘벡 상티에 2006년 선언, "사회적 경제는 율았다!"	이수연
세계의 시선	6/25	맨큐의 1%를 위한 변론	여경훈
세계의 시선	7/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조세회피	김병권
세계의 시선	7/11	미국 불평등의 현 주소,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재산불평등	여경훈
세계의 시선	7/12	고래의 죽음이 살린 바다 밑 생태계	김병권
세계의 시선	7/18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성과	김수현
세계의 시선	7/24	디트로이트 파산, 빈곤의 섬이 된 도시	김병권
세계의 시선	7/25	페이스북 2인자 '세릴 샌드버그' 가 던진 여성 논쟁	최정은
세계의 시선	8/22	최저임금, 경쟁력과 생산성을 촉진하는 산업정책	이수연
세계의 시선	9/5	빈곤이 대물림되는 사회	최정은
세계의 시선	9/11	글로벌 경제에서 실체가 불확실하지만 알려진 위험	김병권
세계의 시선	9/13	수요확대 정책으로 경제순환 구조 만들어야	김수현
세계의 시선	9/16	경기회복에도 심화된 소득불평등	여경훈
세계의 시선	10/15	노벨상위원회의 2013년 노벨상 선정 이유와 경제흐름	이수연
세계의 시선	10/30	실업자이지만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수현
세계의 시선	11/21	옐런, 미국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까?	김수현
세계의 시선	11/22	시간제 일자리' 의 딜레마	최정은
세계의 시선	11/28	출퇴근 시간과 정치참여의 상관관계	이은경
세계의 시선	11/29	프란치스코 교황의 경제학	여경훈
세계의 시선	12/12	핀란드 교육 '실패' 아닌 '개혁과정'	최정은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